

종교 개혁은 오늘날에도 의미를 지니는가? *



스튜어트 길(퀸즈랜드대학교 임마누엘대학 학장)
이상규 역

디어메이드 맥클로우(Diarmaid MacCulloch)¹⁾가 2004년 7월 7일 ‘프로테로 강좌’(The Prothero Lecture)에서 행한 강연, “영국종교개혁 지도 그리기”(Putting the English Reformation on the Map)에서 영국성공회의 국제적인 개신교 정체성이 후에 발전된 성례론적인 가톨릭적 가치와 어떻게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²⁾ 그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두 가지 의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영국이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을 경험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헨리 8세와 그의 결혼 소동에 대해서 알고 있고, 피의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10일 본 개혁주의학술원이 주최한 종교개혁기념강좌에서 행한 강연 원고를 번역한 것임, 필자인 Stewart Gill 박사는 에딘버러대학(BA, MA)에서 수학하고 캐나다연방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MA, PhD)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보른 장로교 신학대학, 리들리신학대학, 멜보른대학교에서 교수했고, 현재는 호주 브리스번의 퀸즈랜드대학교의 임마누엘대학 학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교회사학회 외에도 세계 캐나다학회 창립에도 기여하여 캐나다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 Diarmaid MacCulloch는 옥스퍼드대학교 신학부의 교회사 교수이다. 그는 British Academy의 연구원이자 교회사학회지(*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의 공동 편집인이다. 그는 튜더왕조기 영국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했다. 그가 집필한 전기 *Thomas Cranmer: a Life* (Yale UP, 1996)은 휘트브레드 전기상(Whitbread Biography)과 듀프 쿠퍼 및 제임스 테이트 블랙상(Duff Cooper and James Tait Black Prizes)을 수상했다.

2) D MacCulloch, "Putting the English Reformation on the Map," *Transaction of the RHS* 15(2005), 75-95.

메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영국의 악천후와 자신의 탁월한 연설(틸버리 연설)로 스페인의 아르마다 함대를 물리친 훌륭한 엘리자베스 여왕(Queen Bess)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교회(Church of England)는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이런 역사의 자취들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개신교운동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런 은폐 노력은 성공회가 교황을 추종하는 가톨릭보다 더 낫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후에 머리글자 ARCIC (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로 알려진 1970년에 시작된 일련의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로마와의 재연합을 위한 길을 찾으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 회의들에 참석한 자들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강조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들은 자주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이 일어났던 1830년대에 존 키블(John Keble)과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에 의해 다시 쓰인 영국 교회사에 대한 성공회-가톨릭의 진술에 의지하고자 했다.³⁾

맥클로우의 강연은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루터교가 아닌 개혁파 교회(Reformed Protestant)와 연계되게 되었는가를 연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헨리 8세(Henry VIII)의 개혁과 ‘중도노선’을 취했던 당대의 유럽 본토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비교하고 있다. 에드워드 6세(Edward VI) 시대의 교회는 엘리자베스(Elizabeth)시대의 종교적 정립, 곧 가톨릭과 타협하기 보다는 개신교의 가치를 주장했던 분위기와 대비되고 있다. 영국에서 성당들의 변칙적인 역할은 후일의 주류의 유럽 개신교로부터의 이탈의 주요 원인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북미의 영국 식민지에서의 개혁교회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영국성공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교파에 있어서도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타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되

3) Ibid., 75-76.

고 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종교개혁 일을 기념할 때 우리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숙고해 보는 일은 매우 적절하다.

1. 개혁운동의 배경

16세기 개혁운동의 배경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우선 종교개혁의 본질과 개혁이 일어난 정황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지리적 상실

15세기 말엽 기독교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 전망은 결코 밝지 못했다. 제도화된 기독교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고, 교회는 지리적으로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내적인 생명력도 쇠퇴하고 있었다. 교회는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전초기지를 잃었거나 심각하게 축소되어 있었다. 소아시아와 유럽남동부에서 교회들은 회교도인 오스만 제국(Ottoman Turks)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슬람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로마 교황청의 타락

유럽에서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 계급은 자신들의 지위를 사치와 권력의 기회로 여겼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교황제도를 개혁의 도구로 삼으려는 12, 13세기의 개혁자들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더 높아진 권력과 그 직위의 비중에 걸맞는 수입을 얻는 더 많은 직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들 또한 교황청에서 자신과 가문을 위해서 지위를 얻으려 했다. 종교개혁 전야에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볼 때 교황제도와 교황청은 범죄의 소굴로 여겨지고 있었다. 교회 행정 중심지에 있어서 부패는 전염성이 강했다.

군주제로 인한 세속화

절대적인 군주제로 교회의 지배가 절정에 달하게 되자 세속화로 인한 악은 더욱 가중되었다. 교회를 평신도 군주들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이전 시대의 투쟁은 제왕들이 자기의 영토에서 감독을 임명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교황의 칙령이 출판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왕의 권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해소되었다. 교회 위에 군림한 군주들의 권력은 해가 갈수록 강해졌다.

영적인 삶의 회복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16,17세기는 서부유럽 기독교에서 신선한 생명의 물결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훨씬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삶 속에 베어들었고, 그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신약성경의 이상적인 모습에 근접하게 다가가게 했다. 이런 변화의 물결 가운데서 전례 없던 대규모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로 그 이전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렀을 때는 그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더욱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적인 왕조들 간의 장기간의 전쟁에서 수반되는 악과 싸웠다. 그리고 유럽의 정복자들, 탐험가들, 상인들, 그리고 정착민들에 의해 사람들이 착취되는 것을 조사하고, 그리고 비유럽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유럽인들과 접촉했다.

기독교에서의 새로운 활력은 주로 서부 유럽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개신교의 출현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쇠신인데, 이 교회는 14, 15세기의 심각한 타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진작시켰으며, 이전의 어떤 종교도 이루지 못했던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발전시켰다.

2. 종교개혁의 본질

종교의 부흥

16세기 개신교의 개혁운동은 이전시대와 무관한 고립된 운동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한 것도 아니었다. 중세교회에는 (대개 실패였지만) 여러 차례 개혁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루터와 칼빈의 작품들은 이런 시도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르네상스와 관계된 학문의 새로운 보급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루터와 칼빈은 자신들의 임무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부분적으로 상실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중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퇴색해 버린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보았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이전에 있었던 예컨대 르네상스와 같은 일로 일어난 지성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운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런 관련성에 고무된 나머지 종교개혁은 “단지 인간 정신의 광범위한 운동이 종교의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발생한 일을 원인과 혼동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 주도된 운동이라는 양상도 있었기 때문이다. 노련한 루터의 전기 작가인 롤란드 베인톤(Roland Bainton)은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종교개혁은 그 어떤... 다른 운동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다. 도리어 종교개혁의 상당한 과정이 그것들에 의해 조건 지워 졌다. 어떤 운동에 대해서는 동맹 관계를 형성했지만,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시대의 운동이 교회의 통제를 약화시키므로 종교개혁을 부추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부흥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을 중세 경건의 최후의 위대한 결실로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종교개혁은 종교의 부흥(a revival of religion)이었다. 그것은 제도와 교리 그리고 삶을 개혁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15세기 르네상스보다 더 앞선 시기의 교회 개혁 운동들과 더 분명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더 앞선 시기의 개혁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a) 수도원 개혁과 설교하는 수도단의 등장 (b) 개혁적인 교황들 (c) 공의회 운동, 곧 교회회의가 교황권보다 우위에 있고, 개혁은 교회회의에 의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의 대두 (d) 발도파(the Waldenians), 알비조파(the Albigensians), 롤라드파(the Lollards,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 보헤미아형제단(the Bohemian Brethren, 존 후스의 후예들), 그리고 사보나롤라(Savonarola)와 같은 교회 밖에서의 운동들이나 교회에 의해서 정죄 받은 운동들 (e) 존 타울러(John Tauler), 하나님의 벗(the Friends of God),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the Common Life)과 같은 기독교 신비주의 (f) 에라스무스(Erasmus), 존 콜렛(John Colet), 토마스 모어(Thomas More), 자크 르페브르(Jacques LeFevre), 그리고 요한 로이힐린(Johann Reuchlin)과 같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종교개혁의 정황

교회적 정황

종교개혁과 같은 운동은 중세 사람들이 비종교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너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다. 오랜 세월동안 반복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비록 종교개혁의 시기나, 의미, 방법 등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을 것이다. 콘스탄츠 공의회(the Council of Constance)로 시작된 몇 차례의 교회회의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들을 대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

에 대해 이야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리고 개혁을 간절히 요구하게 되었다.

정치적 정황

당시 정치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힘은 유럽 국가들을 하나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단위로 묶으려는 강력한 민족주의 의식이였다. 정치적으로 유럽은 중세 제국의 후예들로서 민족의식이 있는 국가들의 연합이었는데, 오랫동안 교황권과 우위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지 지난날의 영광의 그림자만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유럽은 5개국 곧,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 의해 지배 받고 있었다. 게르만적 국가들(Germanic countries)은 신성로마제국이라고 불렸다. 여기서는 영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15세기 말 영국에서 있었던 장미전쟁은 봉건 귀족들의 세력을 척결했다. 그래서 15세기 말(1485-1509) 헨리 7세는 강력한 군주로 출현할 수 있었다. 그는 두 가지 주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스페인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스페인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아더(Arthur)는 1501년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드(Ferdinand)와 이사벨라(Isabella)의 딸인 캐서린(Catherine)과 결혼 했다. 아더는 그 후 잠시 살다가 사망했는데, 캐서린은 곧 헨리 7세의 또 다른 아들과 혼인을 약속받았다. 헨리 8세는 1509년 캐서린과 결혼하였고, 영국의 왕이 되었다. 이 결혼은 영국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코틀랜드에서의 경우, 헨리 7세의 딸이 스코틀랜드 왕과 결혼하였다. 이 결혼의 오랜 결과는 1603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두 나라는 한 왕의 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국가들은 서로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교황권은 또 다른 현세적 권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외국권력의 집중화된 지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교회의 출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사회적 정황

십자군 전쟁 이후 상인 중심의 '중산' 계급이 대두를 보게 되는데, 이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비 봉건적 시각은 로마 교회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로마 가톨릭 개혁가들이 주로 귀족 출신으로 구성된 반면에, 개신교는 대체로 중하층 계급에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런 점이 종교개혁을 일종의 사회적 반란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낳게 했다. 이런 해석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었다. 새로운 상인 계급이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쇄기로 만든 책과 소책자들을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종교개혁 사상 전파의 길을 준비하는데 일조했다.

지적 정황

르네상스는 인간의 지적인 지평을 확대시켜 주었고,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관심을 신앙의 원천으로 돌려놓았다. 이미 자국어로 된 성경은 평범한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교회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를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게 함락된 후, 이곳에서 쫓겨난 헬리어 학자들이 전해 준 이와 같은 지적인 각성은 전통적인 교의와 교회 계급에 대하여 더 많은 비평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3. 개혁의 목적과 방법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처럼 교회가 신앙과 삶에서 이전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변혁이나 혁신이 아닌, 종교의 부흥이었다. 이러한 부흥은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삶과 교리에 있어서 악습을 제거하고, 복음 및 개인적 신앙 경험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했다. 중세시대의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이런 악습의 제거와 정결함에 대한 요구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교황들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었다. 교황의 관할지역에서부터 시골의 교구에 이르는 전역에서의 성직자의 윤리는 확실히 신약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아니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개혁이 요구되었다. 사면(면죄)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차 상업화 되었고, 성직자와 성례전적인 제도를 통하여 중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은혜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또한 은혜에 대한 복음적인 교리와 경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세 교회에서 변화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교황이나 교회회의였다. 그러나 교황은 중세시대 이후로 집단운동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아비뇽 유수(1305-74)가 군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회의는 교회정치에 참여하여 교황의 명예를 가볍게 해 주고자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교회회의들은 결국에 가서는 고위 성직자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의 타락은 루터나 왕이나 시의회와 같은 새롭게 형성된 권위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개신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점점 교회의 권위 위에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제일을 강조하는 '바울'의 구원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려는 운동도 있었다. 제사장적이고 성례전적인 종교에 대한 개혁자들의 거부 경향과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4. 종교개혁에 대한 해석자들

'개신교'(Protestant)라는 용어는 일련의 운동(movement)으로부터 나왔다. 1529년 독일 황제는 루터파 교회의 존립의 법적 권리를 부여했던 이전의 합의를 파기했다. 루터파의 제후들은 이전의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항의자들(Protestants)이라고 불렸다. 점차적으로 이 용어가 확산 되면서 서양에서 로마 가톨릭교회 밖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종교개혁'(Reformation)이라는 용어는 보다 오래된 용어이다. 중세에 그것이 의미한 바는 본래의 규정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수도원을 개혁한다고 할 때 그것은 수도원 본래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중세가 끝날 무렵에는 이 말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수장과 구성원이 개혁하는 것'(이 말은 1311년에 처음 사용되었다)으로 인식되었다.

'개신교의 반발'(Protestant revolt)이라는 표현 역시 가톨릭교회에 대항한 반발과 관련하여 문헌에서 나타난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개신교의 성향을 담고 있었고, '개신교의 반발'이란 말은 가톨릭의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개신교의 혁명'(Protestant Revolu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는데, 주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에서 사용된 용어였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로마 가톨릭 역사학자계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초기 가톨릭 역사가들은 루터를 가장 무례한 용어로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셉 로츠(Joseph Lortz)의 『독일에서의 종교개혁』(*Reformation in Germany*, 1939-40)을 시작으로, 그리고 필립 휴즈(Philip Hughes)나 다니엘 롱스(Daniel Rops)의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가를 보여주었다. 종교개혁에

대한 진실보된 통찰력과 객관성을 보여준다. 개신교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종교개혁의 계속성과 주요 개혁자들의 기본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5.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 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말하면, 16세기에는 오직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개혁이었다. 이 두 개혁은 부패된 교회적 삶을 정화시키려고 했고, 적어도 중세교회에 의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했다. 비록 가톨릭의 개혁이 루터보다 한 세대 앞서 시작되었지만, 가톨릭의 후기 개혁과정은 의도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반대였으므로 이 가톨릭의 개혁은 종종 반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또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가톨릭의 개혁은 보통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가톨릭의 개혁은 내적인 것이었고, 교회의 주된 구조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개신교 종교개혁은 교황제도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외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다른 많은 특징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그 주장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신교는 네 가지 주요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성격상 ‘개혁적’ Reformed 이었는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와 급진파(재세례파와 신령파, 그리고 반 삼위일체적 인문주의를 포함한)가 그것이다. 넷째, 종교개혁은 국가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면 그것은 대개 군주들이나 시의회,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후원을 입은 것이었다.

6. 종교개혁이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

현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 무오설’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이다. 더욱이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중에는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많은 교훈들이 있다.

성경 무오설

다른 무엇보다도 개혁자들은 엄청난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투자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미건조한 학문적이 연구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발에 등이요 길에 등불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 세워졌다.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은 개혁자들을 말씀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이 말씀의 주된 원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이끄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입을 열어 성경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풍성하게 주셨다. ... 주님은 이러한 일에 그들이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의 수고가 이 분야에서 구술과 저술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용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그러한 일이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이 능력은 오직 뜨거운 기도와 부지런하고 끊임없는 영감 된 책 자체에 대한 연구로만 얻을 수 있다. 은혜와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유용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가장 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유도한다. 1521년에 열린 보름스제국의회(the Diet of Worms)에서 루터는 황제에게 유명한 진술을 했다. “지극히 존엄하신 폐하께서 저에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이제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성경의 증거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저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제 자신이 인용했던 그 성경에 속해 있고,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철회할 수도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며,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런 일이 있기 오래 전부터 루터는 성경의 무오설에 대해 굳게 서 있었다. 예를 들면, 그의 시편 주석(1512-16)에서 루터는 “어거스틴은 훌륭한 원리를 간직해 왔다. … 오직 성경만은 무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말에 대한 진술에서 보여주듯이 루터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었다.

루터가 야보고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언급한 것 때문에 비난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터의 의문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 1522년 경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한 자신의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은 듯하다. 루터는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칼빈 역시 개혁자로서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고수했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충만한 구원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는 죽었고, 주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곳과 마음은 전혀 감동되지 않은 채 오로지 귀에만 들려지는 곳에서 자신의 독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다.

칼빈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16 절에 관한 그의 주석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성경을 정해진 원리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주어졌거나, 자신들의 원천인 사람들의 사고에 의해 제시된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쓰인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누군가가 반감을 가지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주신을 계시하신 그 동일한 성령의 계시에 의한 일이라는 말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각없이 되는데로 그들이 받은 바를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불러 넣으신 바에 따라 그들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입이었다는 점을 증언한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확신을 가지게 만든 그 동일한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 안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 조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분명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절의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존경을 성경을 향해서도 돌리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출처를 삼을 뿐, 그것과 섞여있는 인간적인 출처에 빛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것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고 영감 받은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자신의 책, 『칼빈의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론』에서 칼빈은 성경 무오에 대해 신뢰했음을 지적한바 있다.

하나님의 주권

워필드(B. B. Warfield)는 이렇게 썼다. “칼빈주의적 사상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the vision of God)과 그의 위엄(His majesty)이다.” 개혁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이 사야가 본 하나님이였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거민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를 펼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흙을 마음대로 빚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시다. 아마 주권에 관한 모든 주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쓰인 최고의 논문들 중 하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의 마지막 세 장 일 것이다.

1925년 5월, 찰스 핫지 주니어(C. W. Hodge Jr)는 2학년 반 신학 수업 마지막 강의에서 개혁신앙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1) 개혁신앙은 정당한 유신론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권자이시고, 그의 작정하신 바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전능한 자이다. (2) 개혁신앙은 순전한 종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사람들을 강권하기 때문이다. (3) 개혁신앙은 일관된 복음주의이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친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창조자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개혁자들의 표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성경과 교회권징에 대한 인식

개혁자들과 우리 시대의 많은 소위 교회인체 하는 집단들의 태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가!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불손한 경시 때문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했다.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성령의 전능하신 역사가 있게 하소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철저한 권징을 확립하기 위해 수년간 싸웠다. 그러나 교회법원(the consistory)이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권을 누리게 된 것은 1555년 이후였다. 교회법원은 시민들과 설교자 자신들의 삶과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들은 지켜볼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조치도 취했다. 한 이발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언행을 하고, 설교자들을 경멸하고, 가톨릭 미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추방되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식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1) 하나님 말씀의 참된 선포, (2) 성찬식의 바른 집행, (3) 권징의 바른 실행이었다. 교회 권징에 대한 요구는 일부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는 유쾌한 것이 아니었으나 낙스(J. Knox)는 이것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경주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얼마나 다른가! 많은 큰 교파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요한 교리들을 부인하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약속을 권하거나 묵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에는 얼마나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21세기 초에 자유주의와 싸웠던 위대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은 미국 신학자 메이첸(J. G. Machen)이었다. 그는 교회에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미국에 있는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것을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실제로 훨씬 더 큰 슬픔을 주었던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그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나는 큰 간판이 붙여 있는 한 교회를 보았다. 거기에는 대강 이렇게 적혀있었다. ‘교회 회원이 아니신가요? 들어오셔서 이 교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메이첸은 이렇게 덧붙인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했던 그 때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다.”라고.

참된 교회연합을 위한 노력

개혁자들은 종종 기독교계를 분열시킨다는 이름으로 교회연합주의자들(ecumenists)에 의해 비난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바라는 개혁자들의 갈망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다.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쾰빙글리(Zwingli)를 따르는 자들에게 우애의 손길을 뻗어, 그들 사이에 있는 일치점을 찾았다. 루터교도들과의 일치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시도는 이루어졌다. 루터는 오히려 왕왕히 비타협적이었다. 그러나 설사 루터가 칼빈을 가리켜 악마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칼빈 자신은 여전히 루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종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랜머(Cranmer)에게 쓴 한 편지에서, 칼빈은 개신교도들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1551년의 크랜머 대주교의 제안을 지지했다. 그는 개신교 교회가 상호 분열되는 것이 당시의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게 관련한, 만일 내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교제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열 개의 태양이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천사들도 기뻐할 그런 하나 됨으로 결합할 것이다”라는 자신의 갈망을 표현했다. 크랜머와 칼빈의 이런 갈망은 주목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르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1536년 칼빈이 제네바를 거쳐 가고자 했을 때 윌리엄 파렐(William Farel)은 그를 붙잡고, 그가 제네바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칼빈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파렐은 만일 그가 이 임무를 거절한다면 칼빈의 앞으로의 연구에 임하게 될 엄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칼빈은 굴복하고 말았다. 몇 년 후에 그는 제네바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1541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초청받았다. 그는 이 난폭한 도시보다 더 두려웠던 곳은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파렐은 그에게 다시 소리를 쳤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심장을 주님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그의 상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심장을 내뻗은 손이 되었고, 그의 표어는 “오! 주님, 저의 심장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가 되었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 것이 되어야 한다.

개혁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기도 했다. 도비너(D'Aubigne)는 루터가 황제와 법정에서야만 했던 1521년 어느 날 아침 하나님께 간구했던 루터에 대해서 말한바가 있다. 도비너는 “하나님께 탄원”했다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의 “가장 비밀스러운 근원”을 발견한다. 도비너는 그곳이 바로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견했던 곳이라고 주장한다. 후에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개혁자들이 볼 때 미래는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다. 마치 제국의 권력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될 것처럼 보였다. 루터의 동료인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 아들에게 호소하는 일만 남아 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Mary)는 존 닉스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은 닉스의 기도가 한 연대의 무장한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 이틀 밤 동안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묵상하며 보냈다. … 나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다. 나는 수많은 악에 대항하여 싸웠다. … 그리고 이겼다.”

성령에의 의존

칼빈은 흔히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렸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교리를 충분하고도 명료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워필드(B. B. Warfield)는 그에 대해 이렇게 썼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관한 칼빈의 모든 생각을 특징 지워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구원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칼빈과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자신들의 전적인 의존을 의식했다. 그들이 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힘도 능도 아닌, 오직 만국의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었다.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1881년 조지 스미튼(George Smeaton)은 다음과 같이 썼다.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처와 굶아터진 상태에 대해 오로지 성령이 부어지는 새로운 역사만이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주장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줄곧 성령을 기다려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기대하고 기도하라.” 종교개혁은 바람이 불어와 부딪힐 때까지 조용히 달려 있는 ‘바람 종’(wind chimes) 장식물과 비교될 수 있다. 그 장식물은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것을 집 안에 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장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지 않으신다면, 교회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혁자들처럼 우리들도 적재적소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16세기의 개혁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지닌 자신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리더십과 신칼빈주의

하성만 (고신대학교 교수, 신학일반)



신칼빈주의는 19세기 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지어진 명칭이다. 칼빈의 개혁주의를 표방했던 카이퍼가 프랑스와 독일 등지로부터 몰려온 계몽주의 운동에 대하여 만들어 낸 호전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이성을 방편으로 무신론 사상의 계몽운동은 거세게 화란에 밀려왔을 때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스릴 넘치는 반전의 연속이기도 하였다. 카이퍼는 반계몽주의의 선봉에서 기독교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세상을 맞서 싸우려 하였던 기독교 계몽운동가였다.¹⁾

이 글은 신칼빈주의가 거세게 몰아쳤던 무신론에 기초한 계몽주의 사상과 운동 앞에서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웠는지를 살핌으로써, 현대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개혁주의 리더십이 무엇이며, 종교개혁 시대에 보여준 칼빈의 리더십과 칼빈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를 고찰, 전망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1) 필자는 반계몽주의 운동을 하였던 카이퍼를 기독교적 계몽운동가로 표현한다.